

# 주류가격과 음주량의 상관관계에 대한 국제알코올정책연구소(ICAP)<sup>1)</sup>의 입장



마커스 그랜트

국제알코올정책연구소(ICAP) 회장으로 30년 이상을 알코올 관련 분야에 종사  
특히 과거 세계보건기구에서 근무하며 알코올과  
악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활동을 담당

**최** 근 한국에서는 담배와 주류에 Sin-tax를 도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류에 대한 가격인상정책은 세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로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국제알코올정책연구소는 주류 가격인상정책이 음주행태에 주는 영향을 오랜 시간동안 연구한바 있으며,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주류 가격인상은 이론상 소비자의 음주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방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가격인상 정책만이 음주피해 감소를 위해 최상의 대안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품목의 가격을 올리면, 그 품목에 대한 수요가 줄어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의 경우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간단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주류시장구조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으로 사람들은 주점, 식당 또는 집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음주를 할 수 있으며, 증류주, 맥주, 와인 등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한 주종을 마실 수 없게 되면 또 다른 주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같은 주종내에서도 품질과 가격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구조로 인해 단순한 가격인상만으로는 음주량은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주류 가격을 인상했을 경우 음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집단(젊은 계층과 문제음주자)의 경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젊은이들의 경우 두가지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번째 방안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음주량을

1) 국제알코올정책연구소(ICAP : International Center for Alcohol Policies)는 1995년 설립된 연구단체로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알코올과 관련된 국제 정책연구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예방, 불법주류근절 캠페인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류업계의 마케팅자율규제 역시 추진중에 있다. 한국에서는 건전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주류판매자 가이드책자 제작 및 교육을 실시(2008년)한바 있으며, 2009년에는 한국주류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알코올 폐해 감소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바 있다.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연구결과를 분석해 보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경우 주류 가격이 비싸질 경우 음주량을 줄이기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대체 주류를 찾거나 주류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음주를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류를 구입하여 집 또는 기숙사에서 마시는 경우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음주량은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기존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제음주자들의 경우입니다. 이들은 주류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집단으로 가격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렴한 가격에 음주를 할 수 있는 장소 선택을 하거나 저렴한 제품을 구입을 통해 음주량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문제음주자들의 경우 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기존과 똑같은 음주량을 유지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류에 대한 가격정책은 분명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방안이며, 음주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문제음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로운 음주는 사회적, 문화적 요소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류가격과 음주에 대한 흥미로운 해외사례를 들어보면, 주류에 대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핀란드와 아이슬란드의 경우 성인남성중 과음자의 비중이 각각 49.1%와 42.7%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성인남성중 과음자의 비중이 각각 13.9%, 12.8%, 8.5%로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는 사회문화적 현실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

으며, 가격이 음주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로도 높은 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국민들이 저렴한 소주를 가장 애용하고 있어 세율을 높이더라도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류가격인상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보일뿐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주류와 관련하여 알코올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해 각 국가별 실정에 맞는 균형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무리한 규제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의 경우도 주세 인상이나, Sin-tax와 같은 단순한 정책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음주문화와 실정을 반영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모든 음주자들이 해로운 음주를 하거나, 아니면 모두가 적정 음주를 한다면 주류정책을 만들기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다른 품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정책은 사회와 개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권자들이 주류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떤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주류산업의 복잡성과 음주의 다양성 역시 고려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적정한 음주를 즐길 수 있다면, 주류의 가격이 얼마가 되든지, 주류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과하던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며, Sin-tax라는 용어 역시 무의미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류의 소비를 막는 것이 아닌 모든 음주자들이 건전한 음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